

일본 자산운용입국실현 정책과 생명보험회사 대응

강윤지 연구원

요약

일본 기시다 정권은 개인자산형성을 촉진하고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3년 12월 자산운용입국실현(資産運用立国実現) 정책을 발표함. 자산운용입국실현 정책에서는 금융회사에 자산운용업 관련 이니셔티브 수립 및 공개를 요청하는 한편,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짐. 2023년 말부터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은 자산운용입국실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운용 전략 관련 내용들을 발표하고 있음

- 일본 기시다 정권은 개인자산형성을 촉진하고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3년 12월 자산운용입국실현(資産運用立国実現) 정책을 발표함¹⁾
 - 일본 정부는 가계금융자산 2,115조 엔(2023년 6월 말 기준)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예금 약 1,100조 엔이 투자를 통해 기업가치 향상으로 이어지고 가계로 환원되는 시스템을 구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함
 - 자국운용입국실현은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업 참가 촉진, 금융기관 및 자산운용사의 운용력 향상, 연금개혁 3가지를 큰 축으로 함
 - 자산운용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일본의 독자적 비즈니스 관행 및 환경 정비, 신규 자산운용업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실시, 자산운용사의 운용·지배구조·리스크관리에 관한 공통의 원칙 책정을 목표로 함
 - 더불어 자산운용입국실현 정책은 투자 체인을 구성하는 각 주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구함
 - 가계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경제 교육의 내실화, NISA²⁾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금융상품 판매 회사는 고객 이익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의 조성·판매·관리 등에 관한 체제 정비를 촉구함
- 자산운용입국실현 정책에서는 금융회사에 자산운용업 관련 이니셔티브 수립 및 공개를 요청한 한편,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실태 조사가 이루어짐³⁾
 - 자산운용입국실현에서는 대형 생명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에게 회사 내 자산운용 비즈니스 경영의 전략적 위치, 운용력 향상, 지배구조 개선 및 체계 강화를 위한 계획 책정 및 공표를 요청함
 - 각 금융회사 자산운용업 이니셔티브의 수립 및 실행 상황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청에 게재하고 있음⁴⁾

1) 内閣官房(2023. 12. 13), “資産運用立国実現プラン”

2)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일본의 소액투자 비과세제도로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이며 2024년 1월부터 연간 투자 상한액을 120만 엔에서 360만 엔으로 인상하고 비과세 기간도 무기한으로 늘어남

3) 金融庁(2024. 3. 7), “生命保険会社の資産運用に係る実態”

- 2023년 발표된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등 보장성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초장기 국채를 보유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종합적 관리를 하고 있음
- 2024년 금융청의 보험모니터링 리포트⁵⁾에 의하면, 자산운용입국실현 정책에 따라 '장기·적립·분산'의 수요 확대가 예상되며 새로운 NISA 제도 도입으로 인한 변액보험의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2023년부터 환헤지 된 해외채권의 매각을 진행하고 초장기 국채로 대체하거나 증액하는 움직임을 보임과 동시에 초과 수익 확보를 위해 해외채권, 해외 신용자산 및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

○ 2023년 말부터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은 자산운용입국실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운용 전략 관련 내용 들을 발표함⁶⁾

- 스미토모생명⁷⁾은 자산운용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 스튜어디십 활동 강화, 신규 자산운용회사 개척, 인재육성 노력 계획을 밝힘
 - 스미토모생명의 미국 자회사인 시메트라(Symetra)의 자산운용사인 SIM(Symetra Investment Management Company)에 2022년부터 해외 회사채의 운용을 전면 위탁함에 따라 투자 종목 및 자산 확대 노력을 제시함
 - 2024년 8월, 우수한 신규 자산운용사에 대한 발굴을 위해 게이오혁신이니셔티브 펀드에 10억 엔 투자를 결정함⁸⁾
- 제일생명⁹⁾은 공사채 등 전통적 자산에 그치지 않고 대체 자산에 투자를 확대해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분산을 강화하고 있음
 - 2019년부터 대체 자산 전문부서를 설치하여 자산운용전략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체 자산 투자 잔액은 3조 엔을 초과하고 있음
- 일본생명¹⁰⁾은 가계의 자산 형성에 초점을 맞춰 자산운용 자회사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함
 - 2024년 1월부터 일사법 종신보험의 예정 이율을 인상하고, 닛세이자산운용주식회사를 통해 투자 일임 운용 서비스인 '골내비(GoalNavi)'를 새로운 NISA에 적용함
 - 일본생명의 일부 자산운용기능을 닛세이자산으로 점진적으로 통합하고 있으며, 국내 벤처 캐피탈 및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의 신설을 검토 중임
- 메이지야스다생명¹¹⁾은 해외투용자의 확대 및 새로운 운용 방법 연구개발을 통해 자산운용의 고도화를 하고자 함
 - 2024년 4월부터 3년간 거래소 등을 통하지 않은 국내외 비상장 자산에 약 6,000억 엔을 투입하고, 사모펀드 및 사모대출을 중심으로 생명보험과 친화성이 높은 장기운용자산에 투자할 계획을 밝힘¹²⁾

4) 金融庁(2024. 7. 1), “大手金融機関グループ等の取組み(運用力向上・ガバナンス強化等)”

5) 金融庁(2024. 7. 25), “2024年 保険モニタリングレポート”

6) 일본 금융청 홈페이지에 제일생명, 스미토모생명, 일본생명, 메이지야스다생명 4사의 대응 현황에 대한 내용이 게시되어 있음

7) 住友生命(2024. 1. 23), “住友生命グループの資産運用立国実現に向けた取組みについて”

8) 일본경제신문(2024. 8. 13), “住友生命、慶應イノベーション・イニシアティブが組成するインパクトファンドへの投資について発表”

9) 第一生命(2024. 1. 23), “資産運用立国の実現に向けた第一生命グループの取組みについて”

10) 日本生命(2023. 12. 25), “「資産運用立国」の実現に向けた日本生命グループの取り組みを実施”

11) 明治安田生命(2024. 1. 19), “資産運用の高度化に向けた取組みのご報告”

12) 일본경제신문(2024. 1. 4), “明治安田、非上場投資3年で6000億円・新興運用業も活用”